

도시 및 농촌 거주 주부의 식습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od Habits of Housewives Living in Urban Area and Rural Area

계명대학교 가정대학 식생활학과
박사과정 장 현 숙

Dept. of Food & Nutrition Kae 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Student; **Hyeon Sook Jang**

<目 次>

- | | |
|---------------|-------------|
| I. 緒 論 | IV. 結論 및 提言 |
| II. 조사대상 및 방법 | 참고문헌 |
| III. 結果 및 考察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llect basic data which will be effective in performing nutritional educ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at Taegu area and adjacent rural area from June to July in 1986.

The completely answere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for food habits, purchase of food, the sources of nutrition information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housewives of 20's to 50's.

The results obtained are summarized as follows :

- 1) The major food of breakfast was boiled rice (93,9%). With decreasing level of education and in rural area, the percent of boiled rice was higher.
- 2) The frequency of eating out with family is higher in urban area, younger age, and nuclear family.
- 3) The preference for eating between meals appeared in order of bread and cakes, cookies, and the others.
- 4) The preference for desserts appeared in order of fruits, coffee, the others, coarse tea, adlay tea, and ginseng tea.
- 5) The purchasing place for vegetables and fruits was market (53,5%) on the whole, but in rural area, the percent of self production was higher (63,6%).
- 6) With increasing age and decreasing level of education, the percent of accuracy of

nutrition knowledge was lower.

7) Sources in the knowledge of nutrition appeared in order of Radio and T.V., relatives, cookbooks, newspapers and magazines, lectures in cooking school,

In order to promote nutritional status of family, nutritional education for housewives must be accomplished in the first place.

縮 論

오늘날 社會가 發達함에 따라 營養에 對한 관심이 점차 커지면서 健康한 身體를 유지하기 위하여 營養의 重要性이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食生活이나 食習慣은 여러가지 개인의 복합적인 인자들에 의하여 좌우되며, 경제, 교육, 전통등은 모두 식생활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¹⁻⁷⁾ 보고되고 있으며 또한 생활 목표 및 가치관도 식품 섭취에 영향을 미친다⁸⁾고 보고되고 있다.

完全營養은 本能的인 食欲에 의해서 自然的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영양 지식에 의한 실생활에의 적용과 실천을 할 때에 비로서 달성될 수 있다⁹⁾. 그러나 주부들의 영양 지식은 다양한 source에서 얻어지고 있으며, 모든 source의 정보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갖는 경우가 있으며, 옳지 않은 지식을 실제 실생활에 적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¹⁰⁾.

따라서 한 가정에서 식생활 담당자인 주부들의 식생활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가족 전체의 식품 섭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 가족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된다. 그러므로 식생활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교육 대상은 주부라고 볼 수 있다. 가정 주부들의 식품과 영양에 대한 의식화는 가정의 건강은 물론 국력향상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食生活의 合理化와 科學化에 필연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촌 진흥청에서 UNICEF, FAO의 후원으로 應用營養事業¹¹⁾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食生活 構造改善의 試案¹²⁾에서 食品과 營養 改善의 지도 계몽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주부들에게 올바른 營養知識을 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영양교육 program이 필요하고, 바

람직한 영양 교육의 목적은 올바른 食習慣의 確立과 영양 상태의 개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연구 논문들로는 식생활관리에 관한 조사¹³⁾, 주부의 영양 지식과 식습관에 관한 연구¹⁴⁾, 주부의 영양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²⁾ 및 식품기호에 관한 연구¹⁵⁾와 도시 및 농촌의 영양 섭취 실태조사¹⁶⁾ 등이 있으나, 대부분이 연구들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로서 정확한 분석 자료가 충분치 않은 대구시 및 경상북도 농촌지역 주부들의 연령별, 학력별, 거주지별, 수입별, 가족 형태별, 주부의 직업유무별 식생활 실태 및 식습관을 조사하고, 주부들의 영양 정보 source가 주로 무엇인가를 조사하여서 效果的이고 바람직한 方向으로 營養教育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基本資料를 얻고자 하였다.

II.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1986년 6월부터 7월에 걸쳐 대구 직할시, 영천군 및 경산군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모든 항목을 제대로 답한 57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3부분으로 나누어, 식사 형태, 재료 구입,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등을 조사하였다.

얻어진 자료의 처리는 빈도수, 백분율을 구하고, 각 문항에 대해 지역별, 연령별, 학력별, 수입별, 가족 형태별 및 주부의 직업유무별 집단간의 유의성은 χ^2 검증에 의하여 구하였다.

III. 結果 및 考察

1. 調査對象者의 一般的 사항

본 조사의 대상자는 20대 주부 95명, 30대 주부

Table 1. The levels of education of subject housewives

Age	Area	Level of education	Number	Percent	
20'S	Urban	E	1	1.75	
		M	1	1.75	
		H	18	31.58	
		U	37	64.91	
	Rural	E	1	2.63	
		M	19	50.00	
		H	13	34.21	
		U	5	13.16	
	Total			95	16.67
	30'S	Urban	E	4	4.65
M			11	12.79	
H			43	50.00	
U			28	32.56	
Rural		E	34	43.04	
		M	36	45.57	
		H	7	8.86	
		U	2	2.53	
Total			165	28.8	
40'S		Urban	E	7	8.64
	M		23	28.40	
	H		34	41.98	
	U		17	20.99	
	Rural	E	68	69.39	
		M	20	20.41	
		H	7	7.14	
		U	3	3.06	
	Total			179	31.3
	50'S	Urban	E	8	20.00
M			9	22.50	
H			19	47.50	
U			4	10.00	
Rural		E	76	81.72	
		M	6	6.45	
		H	1	1.08	
		U	10	10.75	
Total			133	23.3	
Total			572	100	

E : elementary school graduates
 M : middle school graduates
 H : high school graduates
 U : universtiy graduates

165명, 40대 주부 179명, 그리고 50대 주부 133명으로 모두 572명이었다.

교육수준은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 모두 연령이 많아질수록 학력이 낮아지고 있다.

조사 대상자중 직업을 가지고 있는 주부는 16%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주부보다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총 수입은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41~60만원이 전체의 28.57%로 가장 많았으며, 31~40만원이 20.9%, 21~30만원이 16.1%, 81만원 이상이 15.9%, 0~20만원이 10.2%, 61~80만원이 8.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가족형태별로는 핵가족이 75.1%, 대가족이 24.9%를 차지하여서 핵가족이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 食습관에 대한 조사 내용

(1) 食사의 형태

밥을 짓는데 사용되는 곡류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쌀밥이 49.1%, 보리와 혼식이 37.4%, 콩과 혼식이 10.7%, 기타 잡곡혼식이 2.8%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 χ^2 검증 결과 거주 지역별, 연령 계층별, 수입 계층별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학력 계층별로는 유의적인 차이($p < 0.001$)를 나타내었다. 즉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보리와 혼식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콩이나 기타 잡곡을 혼식하는 비율이 증가함을 나타내었다.

1969년 이래 매년 실시된 보사부의 국민영양조사에 따른 전국 1인 1일당 에너지 및 지방섭취량을 보면 1973년 성인 1인 1일당 평균 열량 섭취량은 2506 kcal이었으며, 1975년은 2429 kcal이었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구성비는 12 : 8 : 80으로서 대도시는 14 : 15 : 71이었다.

또, 우리나라 국민 1인 1일당 지방 공급량은 소득 증대와 식생활 향상에 따라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1975년의 27.4g은 구미제국의 1/6전후 수준이며, 1980년도의 36.6g은 구미제국의 1/4수준이었고, 1984년에는 50.4g으로 구미제국의 약 1/3로 나타났다¹⁶⁾. 1984년 국민영양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은 전체

Table 2. Total income of subject housewives

(thousand won)

Age	Area	0-20	21-30	31-40	41-60	61-80	81-
20'S	Urban	0	3	7	24	6	13
		0.00	5.66	13.21	45.28	11.32	24.53
	Rual	8	11	12	5	2	0
		21.05	28.95	31.58	13.16	5.71	0.00
30'S	Urban	0	4	12	39	9	19
		0.00	4.76	15.48	46.43	10.71	22.62
	Rural	7	14	28	16	6	3
		9.46	18.92	37.84	21.62	8.11	4.05
40'S	Urban	0	3	12	15	8	35
		0.00	4.11	16.44	20.55	10.96	47.95
	Rural	17	24	22	32	11	3
		12.77	25.53	23.40	34.04	1.06	3.19
50'S	Urban	2	3	4	7	9	13
		5.41	8.11	10.81	18.92	21.62	35.14
	Rural	26	25	15	16	4	0
		30.23	29.07	17.44	18.60	4.65	0.00
Total		55 10.20%	87 16.14%	113 20.96%	154 28.57%	44 8.16%	86 15.96%

영양 섭취의 약 73%를 당질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따라서 양질의 단백질 및 필수지방산의 급원이 되는 대두를 혼식하여서 밥을 짓는 방법은 앞으로도 계속 권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침 식사의 주된 음식으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밥이 93.9%로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빵이 4.2%, 기타가 1.2%, 죽이 0.7%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 χ^2 검증결과 지역별 ($p < 0.001$), 학력별 ($p < 0.001$), 주부의 직업유무별 ($p < 0.001$)로 매우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연령별, 가족형태별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침 식사의 주된 형태는 거주 지역에 매우 유의적인 ($p < 0.001$) 차이를 보여 농촌에서는 아침식사의 주된 음식으로 밥이 100%로 나타났으나, 도시지역에서는 밥이외에 빵, 죽, 기타의 형태가 13.3%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에 따른 아침식사의 주된 음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차에 따른 각 계층은 아침 식사의 주된 음식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유의적인 ($p < 0.001$) 차이를 보

이고 있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밥이외에 빵, 죽, 기타의 형태가 아침 식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졌다.

주부의 직업활동 유무별로는 아침 식사의 주된 음식이 매우 유의적인 ($p < 0.001$) 차이를 나타내어서, 직업이 없는 주부의 경우 대부분이 (95.9%) 아침 식사로 밥을 주로 하는데 비해, 주부가 직업을 가진 경우 아침식사에서 밥이 차지하는 비율이 83.3%로 감소하고, 빵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그외 죽, 기타도 증가하였다.

점심식사의 주된 형태, 즉 밥, 빵류, 라면류, 국수류, 기타등은 거주 지역별, 연령계층별, 학력계층별에 어떠한 유의적 차이가 있는가를 Table 5에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점심식사의 주된 형태로 밥이 61.7%, 국수가 11.5%, 라면이 8.1%, 빵이 2.1%, 기타가 1.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아침 식사에서 밥이 차지하는 비율 보다 점심식사에서 밥이 차지 하는 비율이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다. 각 집단별 χ^2 검증 결과 지역별 ($p < 0.001$), 학력별 ($p < 0.$

Table 3. Method of cooking boiled rice

	Group	Boiled rice N (%)	Mixed with barley N (%)	Mixed with soybean N (%)	Mixed with other cereals N (%)	Total (%)	
Area	Urban	225 (51.84)	149 (34.33)	46 (10.60)	14 (3.23)	434 (75.87)	$\chi^2 8.5$
	Rural	56 (40.58)	65 (47.10)	15 (10.87)	2 (1.45)	138 (24.13)	df=3
	Total	281 (49.13)	214 (37.41)	61 (10.66)	61 (2.80)	572 (100.00)	$P < 0.04$ (n.s.)
	20's	54 (56.84)	27 (28.42)	11 (11.58)	3 (3.16)	95 (16.61)	
	30's	83 (50.30)	54 (32.73)	19 (11.52)	9 (5.45)	165 (28.85)	$s^2=154$
	40's	83 (46.37)	73 (40.78)	20 (11.17)	3 (1.68)	179 (31.29)	df=9
	50's	61 (45.86)	60 (45.11)	11 (8.27)	1 (0.75)	133 (23.25)	$p < 0.08$ (n.s.)
	Total	281 (49.13)	214 (37.41)	61 (10.66)	16 (2.80)	572 (100.00)	
Level of Education	E	96 (48.24)	92 (46.23)	9 (4.52)	2 (1.01)	199 (34.79)	$\chi^2=37.8$
	M	56 (44.80)	55 (44.00)	13 (10.40)	1 (0.80)	125 (21.85)	df=9
	H	70 (49.30)	42 (29.58)	24 (16.90)	6 (4.23)	142 (24.83)	$p < 0.001$
	U	59 (55.66)	25 (23.58)	15 (14.15)	7 (6.60)	106 (18.53)	
	Total	281 (49.13)	214 (37.41)	61 (10.66)	16 (2.80)	572 (100.00)	
Income	0-20	43 (49.43)	31 (35.63)	10 (11.49)	3 (3.45)	87 (15.21)	$\chi^2=27.8$
	21-30	47 (54.02)	37 (42.53)	3 (4.45)	0(0.00)	87 (15.21)	df=15
	31-40	46 (40.71)	53 (46.90)	10 (8.85)	4 (3.54)	113 (19.76)	$p < 0.03$
	41-50	58 (50.00)	46 (39.66)	10 (8.62)	2 (1.72)	116 (20.28)	(n.s.)
	51-80	41 (50.00)	27 (32.93)	11 (13.41)	3 (3.66)	82 (14.34)	
	81-	46 (52.87)	20 (22.99)	17 (19.54)	4 (4.60)	87 (15.21)	
Total	281 (49.13)	214 (37.41)	61 (10.66)	16 (2.80)	572 (100.00)		

001)로 매우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연령별 ($p < 0.01$)로도 유의적인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도시에서 점심식사의 주된 형태는, 밥이 61.7%, 국수류 18.2% 라면류 13.6%, 빵류 4.2%를 나타내고 있다.

농촌에서도 같은 경향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고, 밥이 90.6%로서 도시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국수류로 5.8%, 라면류 3.25%, 빵류 0.3%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차에 따른 각 계층은 점심식사의 주된 형태를 선택하는데 매우 유의적인 ($p < 0.001$)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빵류 및 라면류등의 선택 비율이 높아지고, 밥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되고 있다.

연령계층별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점심식사의 주된 형태중 밥의 비율이 더증가되었다. 20대에서는 점심식사로 밥이외에 라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30대와 40대에서는 밥이외에 국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라면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저녁식사의 주된 형태, 즉 밥, 빵류, 인스턴트 식품류, 국수류, 감자 ; 고구마등은 거주지역별, 연령계층별, 학력계층별등에 어떠한 유의적 차이를 가지는 가를 Table 6에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밥이 94.6%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국수로 3.0%이고, 라면 및 인스턴트 식품류가 1.9%, 빵이 0.4%, 기타 0.2%로 나타났다. 저녁식사의 형태중 밥이외에 감자, 고구마의 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을 볼 때 아직까지 감자, 고구마는

Table 4. The major food of breakfast

	Group	Boiled rece	Bread	Ramean	Gruel	Ete	Total (%)	
		N (%)	N (%)	N (%)	N (%)	N (%)		
Area	Urban	229 (86.74)	24 (9.09)	0 (0.00)	4 (1.52)	7 (2.65)	264 (446.15)	$x^2=43.5$
	Rural	308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308 (53.85)	df=3
	Total	537 (93.88)	24 (4.20)	0 (00.0)	4 (0.70)	7 (1.22)	572 (100.00)	$p < 0.001$
Age	20's	86 (90.53)	6 (6.32)	0 (0.00)	0 (0.00)	3 (3.16)	95 (16.61)	$s^2=16.6$
	30's	149 (90.30)	11 (6.67)	0 (0.00)	2 (1.21)	3 (1.82)	165 (28.85)	df=9
	40's	173 (96.65)	5 (2.79)	0 (0.00)	0 (0.00)	1 (0.56)	179 (31.29)	$p < 0.06$
	50's	129 (96.99)	2 (1.50)	0 (0.00)	2 (1.50)	0 (0.00)	133 (23.25)	(n.s.)
	Total	537 (93.88)	24 (4.20)	0 (0.00)	4 (0.70)	7 (1.22)	572 (100.00)	
Level of education	E	199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199 (34.79)	$x^2=57.8$
	M	123 (98.40)	2 (1.60)	0 (0.00)	0 (0.00)	0 (0.00)	125 (21.85)	df=9
	H	129 (90.85)	11 (7.75)	0 (0.00)	1 (0.70)	1 (0.70)	142 (24.83)	$p < 0.001$
	U	86 (81.13)	11 (10.38)	0 (0.00)	3 (2.83)	5 (5.66)	106 (18.53)	
	Total	537 (95.88)	24 (4.20)	0 (0.00)	4 (0.70)	7 (1.22)	572 (100.00)	
Employment of housewives	M-W	462 (95.85)	17 (3.53)	0 (0.00)	2 (0.41)	1 (0.21)	482 (84.27)	$x^2=33.9$
	W	75 (83.33)	7 (7.87)	0 (0.00)	2 (2.22)	6 (6.67)	90 (15.73)	df=3
	Total	537 (93.88)	24 (4.20)	0 (0.00)	4 (0.70)	7 (1.22)	572 (100.00)	$p < 0.01$
Family type	Nuclear-F	401 (92.40)	22 (5.07)	0 (0.00)	4 (0.92)	7 (1.61)	434 (75.87)	$x^2=7.2$ df=3
	Large-F	136 (98.55)	2 (1.45)	0 (0.00)	0 (0.00)	0 (0.00)	138 (24.13)	$p < 0.07$ (n.s.)
	Total	537 (93.88)	24 (4.20)	0 (0.00)	4 (0.70)	7 (1.22)	572 (100.00)	

부식의 위치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감자, 고구마류를 주식대용으로, 전분 및 vitamin 급원식품으로써 앞으로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겠다.

각 집단별 x^2 검증 결과 지역별, 연령 계층별, 학력 계층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결식하는 이유가 거주지역별, 연령계층별, 학력계층별 등에 어떠한 유의적인 차이를 가지는가를 Table 7에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습관상 결식한다가 47.3%, 게을러서 결식한다가 37.2%, 건강을 위해서 결식한다가 14.4%, 절약하려고 결식한다가 1.1%로 나타나고 있다. 각 집단별 x^2 검증 결과 지역별, 연령계층별, 학력계층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건강을 위해 결식한다는 경우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주부의 결식이유로 게을러서 결식하는 경우와 습관상 결식하는 경우를 합해서 84.6%가 되고 있음을 볼 때 주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절약하려고 결식한다고 한 경우, 도시에서는 전혀 없었으나 농촌에서 1.4%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도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생활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가족이 함께 外食하는 빈도가 거주지역별, 연령계층별, 가족형태별에 어떠한 유의적인 차이를 가지는가를 Table 8에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Table 5. The major food of lunch

	Group	Boiled rice	Bread	Ramean	Noodle	Ete	Total (%)	
		N (%)	N (%)	N (%)	N (%)	N (%)		
Area	Urban	163 (61.74)	11 (4.17)	36 (13.64)	48 (18.18)	6 (2.27)	264 (46.15)	$\chi^2=70.1$ df=4 p < 0.001
	Rural	279 (90.58)	1 (0.32)	10 (3.25)	18 (5.84)	0 (0.00)	308 (53.85)	
	Total	442 (61.74)	12 (2.10)	46 (8.04)	66 (11.54)	6 (1.05)	572 (100.00)	
Age	20's	70 (73.68)	5 (5.26)	13 (13.68)	4 (6.32)	2 (1.05)	95 (116.61)	$\chi^2=31.0$ df=12 d < 0.01
	30's	124 (75.15)	4 (2.42)	12 (7.88)	22 (13.33)	2 (1.21)	165 (28.85)	
	40's	130 (72.63)	1 (0.56)	18 (10.06)	29 (16.20)	1 (0.56)	179 (31.29)	
	50's	118 (88.72)	2 (1.50)	2 (1.40)	9 (6.77)	2 (1.50)	133 (23.25)	
	Total	442 (77.27)	12 (2.10)	46 (8.04)	66 (11.54)	6 (1.05)	572 (100.00)	
Level of education	E	179 (89.95)	1 (0.50)	7 (3.52)	12 (6.03)	0 (0.06)	199 (34.79)	$\chi^2=62.1$ df=12 p < 0.001
	M	104 (83.20)	1 (0.80)	10 (8.00)	10 (8.00)	0 (0.00)	125 (21.85)	
	H	84 (59.15)	6 (4.23)	15 (10.56)	32 (22.54)	5 (3.52)	142 (24.83)	
	U	75 (70.75)	4 (3.77)	14 (13.21)	12 (11.32)	1 (0.94)	106 (18.53)	
	Total	442 (77.27)	12 (2.10)	46 (8.04)	66 (11.54)	6 (1.05)	572 (100.00)	

전연 하지 않는다 54.7%, 가꿈(1달에 1번이상)한다가 39.3%, 자주(1주일에 1번이상)한다 5.6%, 매일한다 0.4%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 χ^2 검증 결과 연령계층별에 매우 유의적인(p<0.001) 차이를 나타내고, 거주지역별 및 가족형태별에도 유의적인(p<0.01) 차이가 있었다.

가족이 함께 외식하는 빈도는 도시거주주부의 경우는 가꿈한다, 자주한다. 그리고 매일한다는 합친율이 50%로 나타나고 있고, 농촌거주주부의 경우는 32%밖에 나타나지 않았서,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계층별로도 가족이 함께 외식하는 빈도가 매우 유의적인(p<0.001)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령이 적어질수록 가족이 함께 외식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형태별로도 가족이 함께 외식하는 빈도가 유의적인 차이(p<0.01)를 보이고 있어서, 대가족 보다 핵가족형태에서 가족이 함께 외식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화에 의한 가족 변화는 무엇보다도 가족의 외형적 변화 즉 가족형태 변화에서 현저히 드러나 있고, 핵가족 형태의 증가로 인한 식생활 관

리면의 변화도 더불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食品購入實態

생선구매시 주의점등이 거주지역별 그리고 연령계층별등에 어떠한 유의적 차이를 가지는가를 Table 9에 나타내고 있다. 조사대상자 572명 중 생선눈을 본다가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신선한가 둘러본다가 37.9%, 아가미를 본다가 17.5%, 물감이 뿌러졌는지 본다가 2.5%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 χ^2 검증 결과 지역별 및 연령계층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채소, 과일 구입 장소는 조사대상자 572명 중 53.5%가 재래시장을, 34.6%가 자가생산, 3.9%가 슈퍼마켓, 3.7%가 동네매점, 1.8%가 행사, 1.8%가 백화점, 그리고 0.9%가 직매장을 나타내고 있다.

각 집단별 χ^2 검증결과 거주지역별과 연령계층별에 매우 유의적인(p<0.001)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거주주부의 경우, 채소, 과일 구입 장소로 재래시장이 제일 순위였으나, 농촌거주 주부의 경우는 자가생산이 제일 순위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채소, 과일 구입 장소는 거주지역별에 따라 확실한 차이가 있

Table 6. The major food of dinner

Group	Boiled rice		Bread		Instant food		Noodle		Potato		Etc.		Total (%)
	N (%)		N (%)		N (%)		N (%)		N (%)		N (%)		
Urban	254 (96.21)	1 (0.38)	4 (1.52)	4 (1.52)	4 (1.52)	4 (1.52)	4 (1.52)	0 (0.00)	0 (0.00)	1 (0.38)	264 (46.15)	$\chi^2=5.2$	
Rural	287 (93.18)	1 (0.32)	7 (2.27)	13 (4.22)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308 (53.85)	df=4		
Total	541 (94.58)	2 (0.35)	11 (1.92)	17 (2.97)	0 (0.00)	0 (0.00)	0 (0.00)	1 (0.17)	572 (1000.0)	$p < 0.3$ (n.s.)			
20's	87 (91.58)	1 (1.05)	3 (3.16)	3 (3.16)	0 (0.00)	0 (0.00)	0 (0.00)	1 (1.05)	95 (16.61)	$\chi^2=14.3$			
30's	159 (96.26)	1 (0.61)	0 (0.00)	5 (3.03)	0 (0.00)	0 (0.00)	0 (0.00)	0 (0.00)	165 (28.85)	df=12			
40's	168 (93.85)	0 (0.00)	4 (2.23)	7 (3.91)	0 (0.00)	0 (0.00)	0 (0.00)	0 (0.00)	179 (31.29)	$p < 0.3$ (n.s.)			
50's	127 (95.49)	0 (0.00)	4 (3.01)	2 (1.50)	0 (0.00)	0 (0.00)	0 (0.00)	133 (23.25)					
Total	541 (94.58)	2 (0.35)	11 (1.92)	17 (2.97)	0 (0.00)	0 (0.00)	1 (0.17)	572 (100.00)					
E	189 (94.97)	1 (0.50)	5 (2.51)	4 (2.01)	0 (0.00)	0 (0.00)	0 (0.00)	199 (34.79)	$\chi^2=19.8$				
M	112 (89.60)	0 (0.00)	5 (4.00)	8 (6.40)	0 (0.00)	0 (0.00)	0 (0.00)	125 (21.85)	df=12				
H	137 (96.48)	1 (0.70)	0 (0.00)	4 (2.82)	0 (0.00)	0 (0.00)	0 (0.00)	142 (24.83)	$p < 0.07$ (n.s.)				
U	103 (97.17)	0 (0.00)	1 (0.94)	1 (0.94)	0 (0.00)	0 (0.00)	1 (0.94)	106 (18.53)					
Total	541 (94.58)	2 (0.35)	11 (1.92)	17 (2.97)	0 (0.00)	0 (0.00)	1 (0.17)	572 (100.00)					

음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계층별도 매우 유의적인 ($p < 0.001$) 차이를 나타내는데 연령이 많아질수록 시장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줄어들고, 자가생산하는 경

우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채소와 과일의 구입 장소를 결정하는 이유로는, 전체 조사대상자 중 42.8%가 편의해서라고 응답하였

Table 7. The reason for going without a meal

	Group	Idleness N (%)	Habit For health N (%)	Spare expense N (%)	Total (%)		
Area	Urban	54 (38.30)	64 (45.39)	21 (14.89)	2 (1.42)	14 (75.00)	$\chi^2=1.4$ df=3 $p < 0.7$ (n.s.)
	Rural	16 (34.04)	25 (53.19)	6 (12.77)	0 (0.00)	47 (25.00)	
	Total	70 (37.23)	89 (47.34)	27 (14.36)	2 (1.06)	188 (100.00)	
Age	20's	25 (50.00)	20 (40.00)	4 (8.00)	1 (2.00)	50 (26.60)	$\chi^2=14.9$ df=9 $p < 0.1$ (n.s.)
	30's	17 (31.48)	32 (59.26)	4 (7.41)	1 (1.85)	54 (28.72)	
	40's	19 (35.19)	24 (44.44)	11 (20.37)	0(0.00)	54 (28.72)	
	50's	9 (30.00)	13 (43.33)	8 (26.67)	0 (0.00)	30 (15.96)	
	Total	70 (37.23)	89 (47.34)	27 (14.36)	2 (1.06)	188 (100.00)	
Level of education	E	9 (45.00)	9 (45.00)	2 (10.00)	0 (0.00)	20 (110.64)	$\chi^2=11.1$ df=9 $p < 0.3$ (n.s.)
	M	16 (38.10)	22 (52.38)	3 (7.14)	1 (2.38)	42 (22.34)	
	H	26 (36.11)	28 (38.89)	17 (23.61)	1 (1.39)	72 (38.30)	
	U	19 (35.19)	30 (55.56)	5 (9.26)	0 (0.00)	54 (28.72)	
Total	70 (37.23)	89 (47.34)	27 (14.36)	2 (1.06)	188 (100.00)		

Table 8. The frequency of eating out with family

	Group	Daily N (%)	Ofter N (%)	Occasionally N (%)	Not at all N (%)	Total (%)	
Area	Urban	2 (0.46)	26 (5.99)	187 (43.09)	219 (50.46)	434 (75.87)	$\chi^2=13.5$ df=3 $p < 0.01$
	Rural	0 (0.00)	6 (4.35)	38 (27.54)	94 (68.12)	138 (24.13)	
	Total	2 (0.35)	32 (5.59)	225 (47.34)	313 (54.72)	572 (100.00)	
Age	20's	2 (0.11)	11 (11.58)	45 (47.37)	37 (38.95)	95 (16.61)	$\chi^2=42.2$ df=9 $p < 0.001$
	30's	0 (0.00)	11 (6.67)	74 (44.85)	80 (48.48)	165 (28.85)	
	40's	0 (0.00)	7 (3.91)	72 (40.22)	100 (55.87)	179 (31.29)	
	50's	0 (0.00)	3 (2.26)	34 (25.56)	96 (72.18)	133 (23.25)	
	Total	2 (0.35)	32 (5.59)	225 (39.34)	313 (54.72)	572 (100.00)	
Family type	Nuclear-F	2 (0.46)	26 (5.99)	187 (43.09)	219 (50.46)	434 (75.87)	$\chi^2=13.5$ df=3 $p < 0.01$
	Large-F	0 (0.00)	6 (4.35)	38 (27.54)	94 (68.12)	138 (24.13)	
	Total	2 (0.35)	32 (5.59)	225 (39.34)	313 (54.72)	572 (100.00)	

Table 9. The precautions for purchasing fish

	Group	Dye	Eye	Elasticity	Gill	Total (%)	
		N (%)	N (%)	N (%)	N (%)		
Area	Urban	5 (1.89)	95 (35.98)	113 (42.80)	51 (19.32)	264 (46.15)	$\chi^2=9.0$
	Rural	9 (2.92)	146 (47.40)	104 (33.77)	49 (15.91)	308 (53.85)	df=3
	Total	14 (2.45)	241 (42.13)	217 (37.94)	100 (17.48)	572 (100.00)	p < 0.03 (n.s.)
Age	20's	4 (4.21)	35 (36.84)	42 (44.21)	15 (14.74)	95 (16.61)	$\chi^2=11.3$
	30's	4 (2.42)	63 (38.18)	70 (42.42)	28 (16.67)	165 (28.85)	df=9
	40's	4 (2.230)	75 (41.90)	62 (34.64)	38 (21.23)	179 (31.29)	p < 0.3
	50's	2 (1.50)	68 (51.13)	43 (32.33)	20 (15.04)	133 (23.25)	(n.s.)
	Total	14 (2.45)	241 (42.13)	217 (37.94)	100 (17.48)	572 (100.00)	

고, 31.3%가 값이 싸서, 25.9%가 신선해서라고 응답하였다. 각 집단별 χ^2 검증 결과 거주지역별로 매우 유의적인($p < 0.001$)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농촌 거주부의 경우 자가생산하는 이유로 편리해서가 59.8%로 가장 큰 이유인데 반하여, 도시 거주부의 경우는 재래 시장에서 구입하는 이유로, 편리해서가 35.5%, 값이 싸서가 33.2%, 신선해서가 31.3%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우영이나 연근을 구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 572명 중 75.9%가 통으로 사서 집에서 씻고 썬다를, 12.2%가 썰어놓은 것을 사는데 될 수 있는대로 회고 깨끗한 것을 산다, 11.9%가 썰어놓은 것을 사는데 색깔이 너무 깨끗하면 의심한다고 나타났다. 각 집단별 χ^2 검증결과 거주지역별, 연령계층별 그리고 학력계층에 따라 매우 유의적인 차이($p < 0.001$)를 나타내었다. 거주지역별로는, 농촌에서는 90.6%가 통으로 구입하는 형태였다. 도시 거주부의 경우는 29.8%가 썰어놓은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도 매우 유의적인 차이($p < 0.001$)를 나타내는데 연령이 많아질수록 통으로 구입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학력계층별로도 매우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서, 학력이 낮아질수록 통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고학력 주부의 경우 식생활관리적인 측면에서 시간을 절약하려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한편,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커서 1986년 9월부터 콩,

채소, 과일 등에 사용이 전면 금지된 아황산칼륨제 등을 사용하여 표백한 우영과 연근이 시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고학력 주부들의 편의 위주의 식생활관리면에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식품 위생측면에서 금지된 표백제를 사용한 식품판매금지를 위한 철저한 조치가 정책적 차원에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 식품 기호도 조사

주부들의 식품에 대한 기호도에 있어서 조사대상자 572명 중 즐겨 먹는 간식으로, 36.5%가 빵 및 cake류, 25.5%가 과자류, 24.7%가 기타, 13.3%가 떡 및 엿을 나타내었다. 각 집단별 χ^2 검증결과 연령계층별로 매우 유의적인 차이($p < 0.001$)를 나타내었다. 즉 연령이 많아질수록 과자, 빵 및 cake류에 대한 기호도가 감소하고, 떡 및 엿류에 대한 기호도가 증가하였다.

즐거 먹는 후식으로는 조사대상자 572명 중 53.2%가 과일을, 15.9%가 coffee, 15.2%가 기타, 10.8%가 엽차, 2.8%가 울무차, 2.1%가 인삼차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 χ^2 검증결과 지역별, 연령계층별로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 조미료로서 멸치 사용방법

조리시 멸치를 넣는 형태로는, 전체 조사대상자 572명 중 64.9%가 온마리로 넣어서 끓으면 건져서 버린다는, 18.7%가 내장을 빼고 다지거나 갈아서 가루로 하여 넣는다, 12.1%가 머리, 내장을 넣어 그대

Table 10. The purchasing place for vegetables and fruits

Group	Neighborhood store		Market		Super		Department		Peddling		Direct sales store		Self production		Total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Urban	18 (6.82)	203 (76.89)	19 (7.20)	10 (3.79)	8 (3.03)	4 (1.52)	2 (0.76)	264 (46.15)							$\chi^2=258.657$
Rural	3 (0.97)	103 (33.44)	3 (0.97)	0 (0.00)	2 (0.65)	1 (0.32)	196 (63.64)							308 (53.85)	df=6
Total	21 (3.67)	306 (53.50)	22 (3.85)	10 (1.75)	10 (1.75)	5 (0.87)	198 (34.62)							572 (100.00)	p < 0.0001
20's	7 (7.37)	57 (60.00)	5 (5.26)	3 (3.16)	4 (4.21)	0 (0.00)	19 (20.00)							95 (16.61)	$\chi^2=57.284$
30's	9 (5.45)	100 (60.61)	5 (3.03)	4 (2.42)	4 (4.21)	1 (0.06)	42 (25.45)							165 (28.85)	df=18
40's	3 (1.68)	94 (52.51)	11 (6.15)	3 (1.68)	1 (0.56)	2 (1.11)	65 (36.31)							179 (31.29)	p < 0.0001
50's	2 (1.50)	55 (41.35)	1 (0.75)	06 (0.00)	1 (0.75)	2 (1.50)	72 (54.14)							133 (23.25)	
Total	21 (3.67)	306 (53.50)	22 (3.85)	10 (1.75)	10 (1.75)	5 (0.87)	198 (34.62)							572 (100.00)	

Table 11. The purchasing method of burdocks and lotus roots

	Group	In root	In slice	White clean slice	Total (%)	
		N (%)	N (%)	N (%)		
Area	Urban	309 (71.20)	64 (14.75)	61 (14.06)	434 (75.87)	$\chi^2=22.4$ df=2 p < 0.001
	Rural	125 (90.58)	4 (2.90)	9 (6.52)	138 (24.13)	
	Total	434 (75.87)	68 (11.89)	70 (12.24)	572 (100.00)	
Age	20's	60 (63.16)	15 (15.79)	20 (21.05)	95 (16.61)	$\chi^2=25.7$ df=6 p < 0.001
	30's	117 (70.91)	25 (15.15)	23 (13.94)	165 (28.85)	
	40's	139 (77.65)	23 (12.85)	17 (9.50)	179 (31.29)	
	50's	118 (88.72)	5 (3.76)	10 (7.52)	133 (13.25)	
	Total	434 (75.87)	68 (11.89)	70 (12.24)	572 (100.00)	
Level of education	E	181 (90.95)	0 (4.52)	199 (34.79)	9 (4.52)	$\chi^2=61.3$ df=6 p < 0.01
	M	102 (81.60)	11 (8.80)	12 (9.60)	125 (21.85)	
	H	91 (64.08)	28 (19.72)	23 (16.20)	142 (24.83)	
	U	60 (56.60)	20 (18.87)	26 (24.53)	106 (18.53)	
	Total	434 (75.87)	68 (11.89)	70 (12.24)	572 (100.00)	
Employment of housewives	N-W	372 (77.18)	56 (11.52)	54 (11.20)	482 (84.27)	$\chi^2=3.553$ df=2 p < 0.2 (n.s.)
	W	62 (68.89)	12 (13.33)	16 (17.78)	90 (15.73)	
	Total	434 (75.87)	68 (11.89)	70 (12.24)	572 (100.00)	

Table 12. The preference for eating between meals

	Group	Cookies	Bread, cakes	Rice-cake taffy	Etc.	Total (%)	
		N (%)	N (%)	N (%)	N (%)		
Area	Urban	119 (27.42)	166 (38.25)	51 (11.75)	18 (22.58)	434 (75.87)	$\chi^2=10.3$ df=3 p < 0.02 p (n.s.)
	Rural	27 (19.57)	43 (31.16)	25 (18.12)	43 (31.16)	138 (24.13)	
	Total	146 (25.52)	209 (36.54)	76 (13.29)	141 (24.65)	572 (100.00)	
Age	20's	34 (35.79)	34 (35.79)	6 (6.32)	21 (22.11)	95 (16.61)	$\chi^2=36.1$ df=9 p < 0.001
	30's	39 (23.64)	75 (45.45)	21 (12.73)	30 (18.18)	165 (28.85)	
	40's	47 (26.26)	67 (37.43)	18 (10.06)	47 (26.26)	179 (31.29)	
	50's	26 (19.55)	33 (24.81)	31 (23.31)	43 (32.33)	133 (23.25)	
	Total	146 (25.52)	209 (36.54)	76 (13.29)	141 (24.65)	572 (100.00)	

로 먹게한다, 4.4%가 머리, 내장을 빼고 넣었다가 견져 다른 것을 만든다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 χ^2 검증 결과, 거주지역 및 연령계층별로 매우 유의적인 차이 ($p < 0.001$)를 나타내었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도시나 농촌 두지역에서 모두

온마리로 넣어서 끓으면 견져서 버린다가 가장 많았으나, 농촌의 경우 머리, 내장을 넣어 그대로 먹게한다는 방법이 도시보다 많았고, 도시에서는 내장을 빼고 다지거나 갈아서 가루로 하여 넣는다는 방법이 농촌보다 많이 나타났다.

Table 13. The preference for desserts

Group	Fruits		Coffee		Coarse tea		Adlay tea		Gingseng tea		Etc.		Total (%)
	H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Age	Urban	236 (54.38)	75 (17.28)	45 (10.37)	9 (2.07)	9 (2.97)	60 (13.32)	434 (75.87)					$\chi^2=8.6$
	Rural	68 (49.28)	16 (11.59)	17 (12.32)	7 (5.07)	3 (2.17)	27 (19.57)	138 (24.13)					df=5
	Total	304 (53.15)	91 (15.19)	62 (10.84)	16 (2.80)	12 (2.10)	87 (15.9#)	572 (100.00)					P < 0.2 (n.s.)
Area	20's	57 (60.00)	20 (21.05)	5 (5.26)	0 (0.00)	2 (2.11)	11 (11.58)	95 (16.61)					$\chi^2=28.9$
	30's	94 (56.97)	27 (16.36)	17 (10.30)	5 (3.03)	5 (3.03)	17 (10.30)	165 (28.85)					df=15
	40's	91 (50.84)	31 (17.32)	18 (10.06)	7 (3.91)	4 (2.23)	28 (15.64)	179 (31.29)					p < 0.03 (n.s.)
	50's	62 (46.62)	13 (9.77)	22 (16.54)	4 (3.01)	1 (0.75)	31 (23.31)	133 (23.25)					
	Total	304 (53.15)	91 (15.91)	62 (10.84)	16 (2.80)	12 (2.10)	87 (15.21)	572 (100.00)					

Table 14. The method of using anchovy in cooking

Group	Whole anchovy juice	Anchovy powder	Eliminate head, intestine	Eat head intestine	Total (%)		
	N (%)	N (%)	N (%)	N (%)			
Area	Urban	164 (62.12)	68 (25.76)	17 (6.44)	14 (5.68)	264 (45.15)	$\chi^2=9.0$ df=3 p < 0.03 (n.s.)
	Rural	207 (67.21)	39 (12.66)	8 (2.60)	54 (17.53)	308 (53.85)	
	Total	371 (64.86)	107 (18.71)	25 (4.37)	69 (12.06)	572 (100.00)	
Age	20's	50 (52.63)	28 (29.47)	5 (5.26)	12 (12.63)	95 (16.61)	$\chi^2=29.4$ df=9 p < 0.01
	30's	115 (69.70)	34 (20.61)	3 (1.82)	13 (7.88)	165 (228.85)	
	40's	128 (71.51)	23 (12.85)	11 (6.15)	17 (9.50)	179 (31.29)	
	40's	78 (58.65)	22 (15.54)	6 (4.51)	27 (20.30)	133 (23.25)	
	Total	271 (64.86)	107 (18.71)	25 (4.37)	69 (12.06)	572 (100.00)	

Table 15. High nutritive food

Group	High calorie food	Vegetables	Balance in nutrients	Meats	Total (%)		
	N (%)	N (%)	N (%)	N (%)			
Level of education	E	7 (3.52)	15 (7.45)	96 (47.74)	82 (41.21)	199 (34.79)	$\chi^2=76.2$ df=9 p<0.001
	M	10 (8.00)	13 (10.40)	79 (63.20)	23 (18.40)	125 (21.85)	
	H	8 (5.63)	9 (6.34)	117 (82.39)	8 (5.63)	142 (24.83)	
	U	5 (4.72)	10 (9.43)	77 (72.64)	14 (13.21)	106 (18.53)	
	Total	30 (5.24)	47 (8.22)	368 (64.34)	127 (22.20)	572 (100.00)	
Age	20's	8 (8.42)	9 (9.47)	69 (72.63)	9 (9.47)	95 (16.51)	$\chi^2=29.5$ df=6 p < 0.005
	30's	8 (4.85)	10 (6.06)	113 (68.48)	34 (20.61)	65 (28.85)	
	40's	9 (5.03)	14 (7.82)	120 (67.04)	36 (20.11)	179 (31.29)	
	50's	5 (3.76)	14 (10.53)	66 (49.62)	133 (36.09)	133 (32.25)	
	Total	30 (5.24)	47 (8.22)	368 (64.34)	127 (22.20)	572 (100.00)	

연령계층별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머리, 내장을 다 먹게하는 방법이 높게 나타났다.

(5) 영양에 대한 인식도

영양에 대한 인식도 조사는 Table 15에서 처럼,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조사대상자 572명 중 64.3%가 영양 성분이 고루 들어 있는것을, 22.2%가 육류가 많은 것, 8.2%가 야채가 들어 있는 것, 5.2%가 열량이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각 집단별 χ^2 검증 결과 학력계층별 및 연령계층별에 매우 유의적인 차이 ($p < 0.001$)를 나타내었다.

학력이 낮아질수록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육

류가 많은 것이 영양가가 높은 음식이라고 한 주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영양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 연령계층별, 학력계층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한 가정의 식생활관리 담당자인 주부들에 대한 영양교육 program의 정책적 차원에서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고 생각된다.

식생활에 필요한 영양지식이나 정보는 조사대상자 572명 중 39.5%가 Radio나 T.V를 통해서가, 37.8%가 친지를 통해서, 14.8%가 책, 6.9%가 신문과 잡지, 그리고 1.0%가 요리학원으로 나타내었다.

학력계층별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책, 신문, 잡

Table 16. Sources in the knowledge of nutrition

Group	Newspapers magazines	Radio T.V.	Cooking school	Relatives	Cook-books	Total (%)		
	N (%)	N (%)	N (%)	N (%)	N (%)			
Area	Urban	32 (8.06)	166 (41.81)	5 (1.26)	132 (33.25)	62 (15.62)	397 (76.49)	$x^2=16.7$ df=4 p<0.01
	Rural	4 (3.28)	39 (31.97)	0 (0.00)	64 (52.64)	15 (12.30)	122 (23.51)	
	Total	36 (6.94)	205 (39.50)	5 (0.96)	196 (37.76)	77 (14.84)	519 (100.00)	
Level of education	E	1 (0.60)	47 (28.31)	0 (0.00)	107 (64.46)	11 (6.63)	166 (31.98)	$x^2=115.9$ df=12 p<0.001
	M	6 (5.04)	54 (45.38)	0 (0.00)	46 (38.66)	13 (10.92)	119 (22.93)	
	H	15 (10.87)	69 (50.00)	2 (1.45)	26 (18.84)	26 (18.84)	138 (26.59)	
	U	14 (14.58)	35 (36.46)	3 (3.13)	17 (17.71)	27 (28.13)	96 (18.50)	
	Total	36 (6.94)	205 (39.50)	5 (0.96)	196 (37.76)	77 (14.84)	519 (100.00)	
Age	20's	11 (12.09)	34 (37.36)	1 (1.10)	24 (26.37)	21 (23.08)	91 (17.53)	$x^2=36.2$ df=12 p <0.001
	30's	12 (7.50)	74 (46.25)	1 (0.63)	48 (30.00)	25 (15.63)	160 (30.83)	
	40's	11 (6.88)	59 (36.88)	3 (1.88)	64 (40.00)	23 (14.38)	160 (20.83)	
	50's	2 (1.85)	38 (35.10)	0 (0.00)	60 (55.56)	8 (7.41)	108 (20.81)	
	Total	36 (6.94)	205 (39.50)	5 (0.96)	196 (37.76)	77 (14.84)	519 (100.0)	

지등을 통해 영양 지식을 얻는 비율이 높아지고, 학력이 낮을수록 친지를 통하여 영양지식을 얻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도 매우 유의적인 차이(p<0.001)를 나타내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친지를 통하여 영양지식을 더 많이 얻고 있다고 나타났고, 연령이 적을수록 책, 신문, 잡지등을 통해 얻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유의적인 차이(p<0.01)를 나타내었고, 농촌에서는 친지를 통해서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반면 도시에서는 Radio, T.V.를 통해 영양지식을 얻는것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Radio나 T.V. 신문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규칙적이고 책임있는 영양교육 program의 개발이 요청된다고 사료된다.

IV. 結論 및 提言

도시지역 및 농촌지역 주부의 연령별, 학력계층별, 지역별, 주부의 직업유무별 및 가족형태별 식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밥을 짓는 방법으로, 쌀밥이 49.1%, 보리와 혼

식이 37.4%, 콩과혼식이 10.7%, 기타잡곡혼식이 2.8%였고, 학력이 높을수록 콩이나 기타잡곡 혼식이 더 많았다.

2) 아침식사의 주된 음식으로, 밥이 93.9%, 빵이 4.2%, 기타 1.2%, 죽이 0.7%였고,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농촌에서 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3) 가족이 함께 외식하는 빈도는, 전연하지 않다가 54.7%, 가끔이 39.3%, 자주가 5.6%, 매일이 0.4%이었다. 도시지역, 젊은 연령층 및 핵가족계층에서 외식하는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4) 채소·과일 구입 장소는 시장이 53.5%, 자가생산이 34.6%, 슈퍼마켓이 3.9%, 백화점 1.8%, 동네매점이 3.7%, 행사 1.8%, 백화점 1.8%, 직매장 0.9%이었고, 도시에서는 시장이 농촌에서는 자가생산이 가장 많았다.

5) 간식에 대한 기호도는, 빵 및 cake류가 36.5%, 과자류가 25.5%, 기타 24.7%, 떡 및 엿류가 13.3%로 나타났다.

6) 후식에 대한 기호도는, 과일류가 53.2%, 커피 15.9%, 기타 15.2%, 엽차 10.8%, 울무차 2.8%, 인삼차 2.1%로 나타났다.

7) 영양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 영양가 높은 음식은, 영양이 고루 함유된 식품이 64.3%, 육류가 많은 것이 22.2%, 야채함유 식품이 8.2%, 열량이 많이 나는 것이 5.2%로 나타났다.

8) 식생활에 필요한 영양지식 source는, Radio, T.V.가 39.8%, 친지가 37.8%, 책이 14.8%, 신문과 잡지가 6.9%, 요리학원이 1.0%로 나타났다.

주부들이 영양지식을 얻은 source로는 T.V. Radio 책, 신문과 잡지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연령이 적을수록 시청각매체보다 인쇄매체가 더 중요하였다. 그러므로 여러가지의 대중매체를 통한 규칙적이고도 정확한 영양교육 program의 개발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리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이기열, 이양자, 김숙영, 박계숙, 대학생의 영양 실태조사, 한국영양학회지 **13**(2), 1980, 73-81
- 2) 이희숙, 장유경, 주부들의 영양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8**(3), 1985, 90-97
- 3) 김숙희, 영양실태 조사에 의한 연령과 사회, 경제적 계층별 영양실태 판정, 식품영양정보창간호, 1984, 5-37
- 4) 임국이, 중도시 주부들의 식품 및 영양에 대한 의식조사, 대한가정학회지, **22**(1), 1984, 117-128
- 5) 정혜경, 김숙희, 한국의 도시 빈곤 지역과 농촌의 영양섭취실태, 한국영양학회지, **15**(4), 1982, 290-300
- 6) 이일하, 이미애, 서울시내 여자 중학생들의 성장 발육과 영양섭취 실태 및 환경요인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15**(3), 1983, 37-48
- 7) 안숙자, 서울 주부들의 영양교육 현황에 관한 실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5**(3), 1977, 19-32
- 8) Yetley, E.A. & Roderuck, C. Nutrition Knowledge and health goals of spouses *J. Amer. Diet. Assoc.* **77**, 1980, 31-41
- 9) 박일화, 김숙희, 모수미 : 영양 원리와 식이요법. 이화여대출판부개정판, 1976, pp. 54-57, 60
- 10) 김화영, 대학생의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7**(3), 178-185, 1984
- 11) 金昇珪, 우리나라의 응용영양사업의 현황, 한국영양학회지 **6**(2), 1973, 71-77
- 12) 주진순, 食生活構造改善의 試案. 한국영양학회지, **6**(2), 1973, 83-88
- 13) 이강자, 박인애, 식생활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인천대 논문집, **9**, 469-484, 1985
- 14) 정순자, 김화영 : 주부의 영양 지식과 식습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4), 101-108, 1985
- 15) 이강자, 식품기호에 관한 연구, 인천대 논문집, **6**, 441-452, 1984
- 16) 최혜미, 열량 및 지방영양, 한국영양학회지, **20**(3), 176-186, 1987